



이란 핵협상 극적 타결, 거대 이란시장이 열린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중동지역 제2의 경제대국이자 제조대국이다. 이번 이란 핵협상 타결로 그동안 닫혀있던 이란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IAEA에 의해 이란 핵무기 개발이 중단되었음을 승인받은 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즉시 해제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말~내년 초 제재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므로 이란 진출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對이란 경제 제재 해제시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과 정부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對중동 진출 전략을 마련하여 제2의 중동붐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이란 핵협상 최종 타결 주요 내용

□ 이란과 주요 6개국(P5+1)은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 핵협상을 최종 타결함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의 군사시설을 포함해 핵개발 활동이 의심되는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
 - 이란은 그동안 IAEA가 이란 핵 프로그램에 관여한 과학자와 면담하는 것을 거부했으나 이를 허용하기로 결정
 - IAEA는 군사시설을 포함해 의심되는 시설에 모두 접근할 수 있으나 이는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함께 구성할 중재기구(Joint Commission)의 협의를 거쳐야 함
- 이란은 향후 15년간 저농축 우라늄 재고 감축 및 우라늄 농축을 위한 신규시설 건설 금지, 원심분리기 규모 축소(기존 1만 9,000기에서 6,000기 수준으로 감축) 등을 이행
-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최소 2년마다 장관급 회담을 통해 타결안 이행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할 예정

- 이란이 핵개발 관련 조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 승인될 경우 미국과 EU, UN은 기존 제재를 즉시 해제할 예정
- IAEA를 통해 이란이 핵무기 개발과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미국과 EU, UN은 즉시 제재를 해제하게 됨
 - 그러나 추후에라도 이란이 합의안을 어기게 된다면 65일 이내 다시 제재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포함(snapback)
 - UN의 무기 금수조치는 5년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
 - * IAEA가 이란에 대해 핵무기 생산 의혹이 없다고 밝힐 경우 무기 금수조치 및 탄도미사일 제재에 대한 조기 해제 가능성 존재
- UN 안전보장이사회는 7월 내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Finalisation Day)이며, 결의안 채택 후 90일 이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이 발효(Adoption Day)
 - 이후 IAEA 핵사찰 결과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고 있음이 검증되면 미국, EU, UN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시행할 예정(Implementation Day)
 - * U.S sanctions relief will be provided through the suspension and eventual termination of nuclear-related secondary sanctions, beginning once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 verifies that Iran has implemented key nuclear-related measures described in the JCPOA("Implementation Day")(미 재무부)
 - * Implementation Day will occur upon the IAEA-verified implementation by Iran of the nuclear-related measures described in paragraph 15¹⁾ below, and, simultaneously, the E3/EU+3 taking the actions described in paragraphs 16 and 17 below, and with the actions described in paragraph 18 below taking place at the UN level in accordance with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최종협상문)
 -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미국과 EU의 경제 제재 해제 등 구체적인 조치가 현실화될 예정

1) 15항은 이란이 JCPOA에 합의된 핵관련 조항의 시행이며 16항~18항은 미국, EU, UN이 그동안 이란에 부과했던 제재의 해제(terminate) 및 개정(amend)에 대한 사항

對이란 제재 및 협상 경과

2010년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UNSCR) 1929, EU 공동외교안보정책(2010/413/CFSP), 미국 포괄적이란제재법을 통해 對이란 제재 강화
2011년 말	미국, 국방수권법 등을 통해 이란 제재 수위를 강화
2012년 7월	EU,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
2013년 10월	P5+1과 이란간 핵 협상
2013년 11월	일부 합의안 도출, 對이란 제재 한시적 완화
2014년 7월	협상시한 연장
2014년 11월	협상시한 추가 연장
2015년 4월 2일	포괄적공동행동계획안 마련에 합의
2015년 5월 7일	미 상원, 핵협상안 검토 · 거부할 수 있는 ‘의회승인법’ 가결
2015년 6월 30일	협상시한 연장
2015년 7월	협상시한 추가 연장
2015년 7월 14일	최종 합의

자료 : 각종 언론자료 종합

2

향후 전개 전망

□ (Finalisation Day) 7월중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채택 예정

- 이란과 P5+1은 JCPOA에 합의된 내용을 수용(endorse)함으로써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즉시(promptly)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
- UN 결의안이 채택되면 EU는 이 결과를 수용하고, 이란과 IAEA는 핵사찰 준비에 돌입하게 됨

□ (Adoption Day) 결의안 채택 후 90일 이내 JCPOA 발효

- 90일 이전이라도 각 국별 합의가 도출되면 발효 가능
- 이란은 IAEA에게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추가의정서를 적용할 것을 통보하고, 과거 핵활동에 대한 조사도 받을 예정
- EU는 IAEA 사찰 결과가 나온 후 즉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미국은 기존 제재를 유예할 것임

- (Implementation Day) IAEA 핵사찰 결과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였음이 검증되면 미국, EU, UN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
 - EU는 Council Regulation No 267/2012의 일부를 해제(terminate)하고, Council Decision 2010/413/CFSP의 일부 조항을 유보(suspend) 및 개정(amend)할 예정
 - 미국은 행정명령 13574, 13590, 13622, 13645와 13628의 일부 조항을 해제하고 일부 SDN과 FSE List의 개인 및 단체를 삭제
 -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에 따라 기존의 UNSCR 1696, 1737, 1747, 1803, 1835, 1929, 2224를 해제하되, 핵 확산 혹은 핵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제재는 지속할 예정
- (Transition Day) 최종 합의안 발효(adoption day) 후 8년, IAEA에 의해 이란의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평가
- (UN Termination Day) UN 결의안 채택 후 10년, 기존의 결의안이 복귀되지 않고 부과된 제재는 모두 해제됨과 동시에 더 이상 이란이 핵 문제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선언

미국 의회 승인 일정

60일	검토 : 미 연방의회, 60일 내로 JCPOA를 검토
8월 7일	청문회 : 휴회기간이 시작되는 8월 7일 이전에 청문회(hearings) 완료를 희망(Bob Corker 상원 의원)
9월 중순	투표 : 미 연방의회, 9월 중순경 찬·반 투표 진행 예정
9월 말	거부권 행사 : 연방의회가 JCPOA에 반대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이내에 이에 대한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연방의회는 10일 이내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음 * 공화당 의원들이 연방의회를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 13명의 반대표가 필요 * 오바마 대통령은 34명의 동의표만 얻어도 JCPOA를 지켜낼 수 있음

3

한 · 이란 수출입 현황

□ 이란은 중동 제3의 수출대상국

- 이란은 2014년 기준으로 우리의 수출 26위, 수입 27위의 교역국
- UAE에 수출되는 물량의 약 30~40%가 이란으로 재수출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란은 중동 최대의 수출 시장이며 향후 제재 해제 시 수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

우리의 중동 상위 10대 수출국

(단위 :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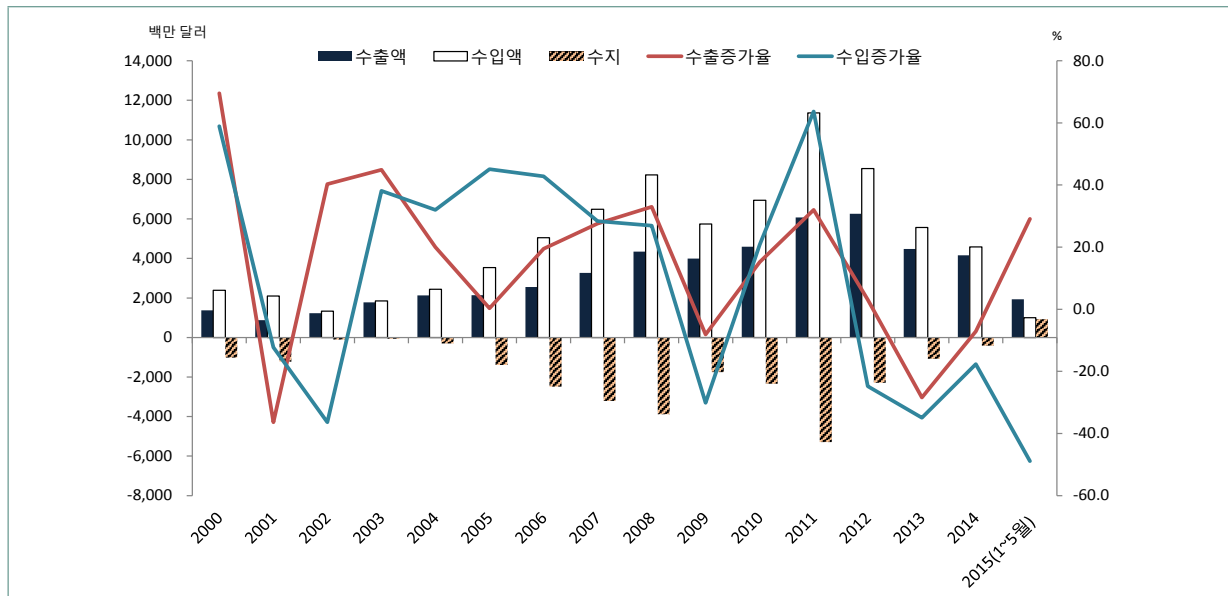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	사우디아라비아	6,964	9,112	8,828	8,288
2	UAE	7,268	6,862	5,738	7,212
3	이란	6,068	6,257	4,481	4,162
4	이집트	1,727	1,807	1,535	2,364
5	쿠웨이트	1,432	1,584	1,133	1,976
6	이라크	1,535	1,866	1,973	1,798
7	알제리	1,122	1,131	1,024	1,417
8	요르단	1,224	1,396	1,317	1,383
9	이스라엘	1,818	1,532	1,464	1,225
10	오만	907	924	1,007	1,172
	중동 전체	32,884	36,616	32,288	34,786

주 : 순위는 2014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수출) 對이란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13억 8천만 달러에서 2014년 41억 6천만 달러를 기록
 - 한국은 2014년 이란 수입시장의 8.0%를 차지하며 중국(23.4%), UAE(22.1%) 다음의 3위국
 - 2015년은 제재의 한시적 유예가 지속됨에 따라 1~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1% 증가
- (수입) 對이란 수입은 2000년 23억 9천만 달러에서 2014년 45억 8천만 달러로 연평균 4.7%씩 성장세를 이어옴
 - 수입은 2011년 113억 6천만 달러로 최고치를 달성하였으나 제재로 인한 원유 수입 감소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2014년은 최고치의 약 40.3% 수준

對이란 수출입 동향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주요 수출품목은 합성수지, 철강판, 영상기기, 냉장고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로 전체 수입의 98.3%를 차지

○ 10대 수출품목의 비중이 전체의 62.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들어 철강판 (35.0%), 자동차부품(92.8%), 무선통신기기(73.2%) 등의 수출이 급증

2014년 對이란 10대 수출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수출액	증가율	비중	품목명	수입액	증가율	비중
1	합성수지	435	8.9	10.4	원유	4,502	-12.3	98.3
2	철강판	426	35.0	10.2	LPG	39	-83.5	0.9
3	영상기기	401	-18.7	9.6	아연제품	12	5.8	0.3
4	냉장고	264	10.7	6.3	기타금속광물	4.6	4152	0.1
5	자동차부품	259	92.8	6.2	합성수지	2.7	3002.5	0.1
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04	-7.9	4.9	갑각류	2.7	2,127.7	0.1
7	종이제품	199	-55.1	4.8	연제품	2.6	-33.2	0.1
8	가정용회전기기	166	-22.8	4.0	전자응용기기	1.7	1,586.0	0.0
9	무선통신기기	140	73.2	3.4	동제품	1.5	206.9	0.0
10	고무제품	127	43.9	3.0	기호식품	1.5	10.9	0.0
	소 계	2,620		62.9	소 계	4,571		99.8
	총 계	4,162	-7.1	100.0	총 계	4,578	-17.7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4

시사점

□ 핵협상 최종 타결로 향후 이란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건설, IT, 소비재시장 확대가 예상

○ 중동 최대의 제조국이며 인구 8천만 명의 소비시장을 가진 이란은 핵협상 타결에 따라 경제가 성장하고 구매력이 확대되어 자동차, IT, 소비재 시장(가전, 화장품, 가공식품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이란의 자동차 생산은 2014년 46.7% 증가한 109만 846대로 이란은 세계 18위 자동차 생산국이자 중동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

– 그러나 이란의 기술은 완성차 생산보다는 완전조립생산(CKD)이 대부분이므로 자동차 부품, 철강판 등의 수입 증가가 기대됨

– 또한 경제 제재로 인해 그동안 부족했던 생필품 등 소비재의 수입 수요도 증가할 전망

○ 금융 제재로 투자가 거의 중단 상태였던 석유·가스 관련 프로젝트,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등 건설 부분의 활성화도 기대

– 향후 제재가 해제될 경우 이란산 원유 수출이 증가해 저유가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도 존재

□ 이란은 중국에 이어 우리의 새로운 전략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 2014년 대중 수출 의존도는 25.4%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

○ 대중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수출 대상국 다변화가 필요하며 36년간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었던 이란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

– 이란은 중동의 제조대국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부품·소재분야의 새로운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할 전망

- 그러나 경제 제재 해제는 IAEA의 이란 핵사찰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함
- 12월 15일경 제출할 예정인 IAEA의 이란 핵사찰 결과에 따라 이란 제재도 해제될 예정이므로 올해 말~내년 초까지는 기존 제재가 유지될 전망
 - 그러나 제재 해제 이후에도 이란이 협상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다시 부과 (snapback)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최종 경제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는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수출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전략물자관리원의 비금지확인서를 통한 물품 확인, 금융·거래대상자·선사 등의 제재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전략시장연구실 수석연구원 홍정화 (02-6000-5178, marina01@kita.net)
연구조원 이지영 (02-6000-5499, dididda@kita.net)